

韓-브라질, 67년 만에 '전략적 동반자관계' 롤라 "브라질 히토류 투자 희망"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2.23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의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의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날 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 정상 간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양 정상은 1959년 수교 이후 그간의 꾸준한 협력을 토대로 67년 만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을 채택, 정치·경제·실질 협력·민간 교류 등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이끌 로드맵으로 삼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어 서로의 신뢰를 토대로 한국과 메르코수르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의 경제 공동체다.

한국은 그간 이들과 무역협정을 체결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상품시장 개방 등 핵심 쟁점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양측의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에 룰라 대통령도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한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양 정상은 밝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소기업·보건·농업 등을 비롯한 10개 분야에서 양해각서(MOU) 및 약정을 체결, 분야별로 실질적 협력 이행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보건 분야 규제협력 MOU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에서 인기를 끄는 K-화장품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주·방위산업·항공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송기 제조에 우리 부품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항공 분야에서도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진행 중"이라며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등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가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작년 12월 브라질 알칸타

라 우주센터에서 한국 최초의 상업 우주발사체가 발사를 시도했던 일을 언급하며 "이는 양국 간 우주 협력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 머지않은 미래에 발사에 꼭 성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도 "에너지 전환이 양국 생산 부분의 상호 보완성을 높일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께 브라질산 소고기 수출을 위한 위생 검역이 조속히 마무리되면 한국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글로벌 정세와 지역 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 협력을 재개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열어내겠다는 의지를 룰라 대통령에게 설명했다며 "양국이 한반도 평화를 넘어 세계적인 평화의 가치를 함께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돌파구 마련"...양국 4개년 행동계획 채택

10개 분야 MOU 체결...우주·방산·항공 등 미래산업으로도 협력 확대

'포용 성장' 룰라에 이 대통령 'AI 기본사회' 설명...한반도 평화에도 공감대

룰라 "쿠데타 시대에 민주주의 회복력 입증"...소고기 검역 문제도 언급

문화 및 인적 교류 측면에서도 양 정상은 브라질 내 한국어 보급과 양국 유학생 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토대로 영화·영상 공동제작 등 콘텐츠 분야 교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문화교류에 대해 설명하면서 "브라질 문화도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파네마에서 온 소녀' 같은 보사노바 명곡은 많은 K-팝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브라질의 문화적 역량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공통의 비전과 과제를 공유했다

는 점도 강조했다.

빈곤 퇴치와 경제발전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룰라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과, 기본사회를 토대로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며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만들겠다는 한국 정부의 구상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혜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의 비전을 설명하고, 복지와 경제의 시너지를 창출할 정책에 대한 양국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양국의 정치적 도전의 역사에서 공통점을 부각했다.

그는 "1980년대 오랜 투쟁과 저항의 과정을 거쳐 우리는 민주화를 이뤄냈고, 40여년이 지난 지금 다시 '쿠데타 시대'라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그러나 시대 앞에서는 굳건함과 회복력을 분명히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오는 4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민주주의 수호 회의'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을 브라질로 초청해 이번 회담에 보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봉 기자

'자사주 의무소각' 3차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상법 개정안, 신규취득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

'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명칭 변경'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처리

사면법 개정안, 통과 보류...'법무부 의견 내달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

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법 개정 취지에 담겨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하면 안 된다고 반대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총실의 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3차 상법 개정안과 사면법 개정안 3법(법외공직·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과 고용노동부에 안전한일터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가정보원 직원 중 3~5급 특정직 직원의 계급 정년을 연장하는 국가정보원직위법 개정안도 함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심귀영 기자

Goheung Spaceship Terminal

제16회 고흥군 우주항공축제

2026.5.2. (토) - 5.5. (화)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 일원

주최/주관 고흥군 고흥군축제위원회

지구문명에서
우주문명으로